

지역 소식 통

부안실버복지관 · 자봉센터
노인 복지 증진 업무협약

부안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흥귀)는 지난 7일 부안실버복지관(관장 박준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노인 대상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의 정서적이고 쾌적한 삶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행복을 전하는 이동 세탁차량 사업 및 가족봉사단의 새활용 고체 삼투바 등 나눔 활동을 통하여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확대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박준성 부안실버복지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의 어르신에게 더욱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와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7월 한 달 ‘산업
안전보건 강조기간’ 운영

정읍시가 산업재해 예방과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7월 한 달간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산업 현장의 재해를 줄이고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마련했다. 강조기간 동안 시는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건설·제조업 현장 예방활동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8일 오전 8시 제일고등학교 사거리에서는 이학수 시장과 재난안전과 직원, 읍면동 안전파수꾼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홍보 캠페인이 펼쳐졌다. 현장에서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과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내문을 배부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시는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수칙 준수와 사고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고창군, 일반 20만 · 차상위 · 한부모가족 35만 · 기초수급자 45만원

고창군이 민생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책으로 21일부터 전 군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소비쿠폰은 1, 2차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원은 7월21일부터 9월2일까지 일반 군민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45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차 지원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군민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 지급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1월30일까지이며, 고창군 관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

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특히, 고창사랑카드로 신청한 경우, 고창사랑상품권 등록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된다.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NH농협·전북은행), 고창사랑상품권(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고창사랑카드로 신청할 경우, “고창사랑페이”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군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를 방

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군민 편의를 위해 14일부터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신청대상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스미싱’ 피해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와 고창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일체 발송하지 않으며, 각 카드사 또한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소비쿠폰은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회복 정책이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결사반대”

“군민 동의 없는 건식저장시설 설치 전면 재검토해야 원전 소재지 중심의 피해보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8일 본회의장에서 정부와 한수원의 한빛원전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일방적인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규탄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에서 최근 한빛원전에서는 6호기 격납건물 배기 중 방사선감시기를 거치지 않은 채 기체가 방출된 사건 등 군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고들이 잇따라 발생했고, 7

월 5일에는 1차 계통의 중대한 설비인 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를 신규 교체한 직후, 제어봉 구동장치 연결부위에 냉각수 누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따른 사고로 한빛원전의 안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고창군의회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주요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고창군민의 최소한의 동의도 없이 추진 중인 한빛 1·2호기 수명연장에 대해,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고창군의회는 △부지 내 일방적인 건식저장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장화를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특별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 △노후된 한빛 1·2호기의 무리한 수명연장을 즉각 중단하고, 군민의 안전과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고창군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 등을 촉구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정읍시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중장기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실행에 나선다.

시는 지난 7일 오후 4시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정읍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운영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번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정읍형 스마트도시 전략과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한 시 간부공무원과 읍면 수행정관인 대영유비테크(주) (주)이노래컴퍼니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의



과업 추진 경과와 최종 계획안 발표 이후에는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이번 스마트도시계획은 △도로 · 교통 △환경 · 안전 △문화 · 관광 △건

강 · 복지 △행정 · 산업 등 5개 분야에서 총 22개 스마트 서비스로 구성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요응답형 교통(IRT) △디지털트윈 기반 재난·재해 대비 시스템 △반려동물 놀이·케어 ICT 기술 접목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돼 시민 생활 편의를 높이고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계획을 지난 6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받았으며, 스마트도시법 제10조에 따라 공고도 완료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읍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부문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정읍시가 인공지능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시는 지난 3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7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성과대회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우수하게 수행한 지자체를 포상해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우수사례 발표와 건강증진사업 최신 동향 공유도 함께 이뤄졌다.

시는 ‘AI-H6’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방문건강관리) 분야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 사업은 고령자의 건강행태와 하악 정도를 기준으로 비대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웰스케어 서비스다.

시는 지난 한 해 동안 65세 이상 어르신 194명을 등록·관리하며, 맞춤형 건강이전과 인센티브를 운영해 고혈압 조절률을 기존 49%에서 78%까지 끌어올리는 성과를 냈다.

손희경 시 보건소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노인 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구시포 · 동호 해수욕장 10일 개장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시원한 파도와 고운 백사장이 펼쳐진 전북 고창군의 명품 해수욕장이 활짝 문을 연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서해안 최고의 피서지인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이 오는 10일부터 8월18일까지 40일간 운영된다.

군은 샤워장, 화장실 등 주요 편의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해리면과 상하면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특히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위해 전문 안전관리요원 8명을 배치하고, 수상오토바이와 고무보트를 활용한 해상순찰도 동원된다. 더불어, 소방과 해양경찰의 협조를 통한 해양사고 및 긴급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하얀 모래의 낙원’으로 불리는 동호해수욕장은 4km 넘게 이어지는 백사장과 완만한 해변경사로 가족 단위 피서객에게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구시포해수욕장은 낙조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사자 작가들과 연인들의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해수욕장은 단순한 여름 휴식처를 넘어,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힐링 공간이다”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